



2012 엑스포 여수로

[종합·해설]

“정부가 뛵니다”… 유치 의지 재천명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람회 유치 후보지 실사단을 위해 방한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대표단을 접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박람회 후보지인 여수 현장으로 내려가 실사단을 위한 선상 만찬을 베풀었다.

노 대통령이 이날 하루동안 한국을 방문한 BIE 실사단 대표들을 서울과 여수를 오가면서 두 차례나 만난 것.

노 대통령의 이날 여수행은 정부의 강력한 박람회 유치 의지 재천명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실사단을 접견한 노 대통령은 개항안에 대한 정치권의 급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여수에 내려와 실사단에게 만찬을 베풀며 2012 여수박람

서울 이어 여수, 하루 두차례 실사단 접견

회 유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노 대통령이 비쁜 일정 속에도 여수를 찾은 것은 실사단에 대한 확실한 유치 의지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도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즉 BIE 실사단에게는 국가 원수로서 2012 여수박람회 개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뜨거운 의지를 다시 새겨주고,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다.

특히 2012 여수박람회는 전남 동부권 발

전의 기록체계가 될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지역과의 동반 상승을 통해 영호남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같은 주론을 뒷받침한다. 여수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전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 영호남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화합의 정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석이 이날 노 대통령의 여수 방문문에 재촉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BIE 대표단에 박람회 유치 후보지로서의 여수의 수려한 풍광을 알리기 위해 여수 신항 앞바다에 정박한 4

천500t급 최신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갑판에서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실사단을 접견한 노 대통령은 여수가 대회 유치를 위해 경합중인 모로코의 태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보다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박람회 개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BIE측에 전달했다.

이날 청와대 접견과 여수 현지 만찬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배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현황과 지원 의지를 설명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11일 오후 여수 시내를 직접 걷는 거리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실사단이 가는 곳마다 여수 시민 수천, 수백명이 몰려 들어 실사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여수=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 실사단 여수도착 이모저모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은 11일 오전 개최 후보지인 여수에 도착,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이날 여수 공항에서 시청에 이르는 등안 연도에 물려 나온 3만여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실사단은 응승한 환대에 시종 환한 미소로 환답했다.

실사단이 탄 비행기가 여수공항에 모습을 보이는 순간 계류장에 마중 나온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이들을 맞이했다. 실사단은 국빈급 대우에 걸맞게 육군 의장대 사열과 휘파대의 연주 속에 손을 흔들며 트랩을 걸어 내려와 박준영 전남지사, 오

실행 단장 “지구상에서 가장 열렬한 환대”

100만인 서명부 전달 받고 ‘원더풀’ 연발

현섭 여수시장 등 지역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사단장인 까르맹 실행 BIE 집행위원장은 도착 직후 박 지사와 오 시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여수 시민들이 환영해 줄 몰랐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열렬한 여수에서 받았다. 내 말에 이의를 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단은 공항 환영식 이후 여수시청에서 시민 대표들을 면담한 뒤 쌍봉사거리까지 약 500m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확인하는 동안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학생 70여명이 해당 국가의 전통 복장을 입고 춤과 노래를 부르자 실사단의 감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또 시민들이 까르맹 실행 단장을 비롯한 실사단 전원의 캐리커처를 흔들며 환호하

자 미처 상상기 어려운 최고의 환영을 받았다는 표정과 함께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실사단은 이어 4천500t급 최신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에서 열린 시민환영 리셉션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자 크게 놀라워하는 모습이었다.

만찬 후에는 거북선 축제에 참석, 화려하고 이국적인 밤의 정취에 매료됐다. 실사단은 해양공원에서 열린 시민환영대회 중 세계불꽃 축제가 진행되자 환상적인 분위기에 도취했다. 실사단은 이 자리에서 유치 지지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 받고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온 국민들의 한결 같은 유치 열기에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GIST GJDEC 2007-3호

보드레벨시스템 생산시설 공동활용기업 모집공고

1. 목적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디지털기전부품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보드레벨시스템 생산시설을 센터와 공동으로 활용하여 지역 중소 전자부품 업체에 양질의 PCB를 제작·공급하고 관련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활용 기업을 모집공고 합니다.

2. 활용 장소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재)광주테크노파크내 사업화 3동 1층
- 지목(구조) : 공장용지(철근 콘크리트조)
- 사용면적(건물) : 848.33㎡(전용 712.17㎡, 공용 136.16㎡)
- ※ 단, 디지털기전센터 사업운영을 위한 일부공간 제외

3. 모집 일정

- 신청서 접수 : 2007. 04. 10 ~ 04. 20 12:00까지

- 신청기업평가 : 2007.04.21 ~ 04.24 (서류심사, 현장실사, 사업발표 포함)
- 계약조건협의 : 2007.04.25 ~ 04.27 (1개 기업 최종선정)
- 선정기업발표 : 2007.04.27
(센터 홈페이지 <http://gjdec.gist.ac.kr> 게시)
- 공동활용 개시 : 2007.05.01

4. 신청시 구비서류

- 공동활용신청서 1부(소정양식)
- 공동활용계획서 7부(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007.4 기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법인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확인서, 각종인증서 등

※ 신청서는 신청자 또는 신청대리인이 직접 우리 센터에 제출해야 함

5.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118호
(우편번호: 500-706)
- 장 소 : 광주디지털기전부품개발지원센터 기획관리팀 사무실
- 문의처 : T. 062-602-7552(담당: 김현호팀장)

6. 기타 사항

상기일정 등 세부내용 변경이 있을 시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정공고 한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디지털기전부품개발지원센터장

2007년 4월 10일

프리젠테이션 집요한 질문 공세

실사단 바다 없는 나라 소외 대책 있나?

유치위 물 문제 부각 내륙국 관심 이끌터

2012년 세계박람회 후보지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은 11일 서울에서 속개된 유치위원회의 박람회 개최 계획 프리젠테이션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의 탄강성과 회원국들의 호응 전망 등에 대해 집요한 질문 공세를 했다.

유치위는 “내륙국의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구 기후변화나 해수면 상승, 물 고갈 등은 전인류의 공통된 문제로, 내륙국도 강의 오염문제나 내륙국의 쓰레기 해양으로 이어져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 등을 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무총리, 국회의장, 3당 대표 등과의 만남에서 ▲ 여수에서 세계엑스포를 열어야 하는가 ▲ 세계엑스포가 여수에서 열리다면 인류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 ▲ 정권 교체에도 세계엑스포 개최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등에 관심이 많았다.

“정권 바뀌어도 문제 없다”

유치위는 이에 대해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등의 사례를 들며 정권교체에도 개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개발지향성과 보존 가치가 충돌하는 지역으로서의 여수를 부각시켰다.

유치위는 또 1992년 리우 선언이나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의 연장선상에 서게 될 ‘여수선언’ 추진계획과 1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여수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김영식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회장이 유치위원회의 엑스포 개최 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